산업통상자원부 http://www.motie.go.kr	보 도 자 료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

2022년 3월 24일(목)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3.24.(목) 오전 10시 이후 보도 가능)

배포일시	2022. 3. 23.(수)	담당부서	에너지기술과 수소경제정책과 온실가스감축팀 광물자원팀
담당과장	박태현 과장(044-203-5150) 이옥헌 과장(044-203-3950) 양정화 팀장(044-203-5160) 양동우 팀장(044-203-5259)	담 당 자	이수정 사무관(044-203-5157) 김만식 사무관(044-203-3953) 고건우 사무관(044-203-5161) 신승일 사무관(044-203-5258)

산업부 2차관, 호주대사와 에너지자원 공급망·R&D 논의

- '22년 上 총 58억원 규모의 수소·CCUS 공동 프로젝트 추진 -
- 한국정부는 금년 4월 런던의정서 임시이행 결의안 수락서 IMO 기탁 예정 -
- 한국에 긴급한 에너지자원 수요 발생 시 한-호 양국간 긴밀 협력 논의 -

□ **박기영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2차관**은 **'22.3.24(목)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회의실에서 주한호주대사관 캐서린 레이퍼**(Catherine Raper) **대사를 면담**하고, **양국의 R&D·수소·CCUS 및 에너지·자원 공급망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함

○ 이번 면담은 **'22.2월 박차관의 호주 방문 후속조치***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에너지·자원 수급 협력**을 논의하기 위해 이루어짐

* '21.10월 정상간 탄소중립 파트너십 성명 발표 및 '21.12월 우리 정상 방호 계기 체결한 탄소중립·핵심광물 MOU 협력 이행을 위해, '22.2.24일 정부간 제1차 탄소중립 기술 운영그룹(수소경제·CCUS 워킹그룹 병행)·제1차 핵심광물 워킹그룹 및 2.25일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개최

□ **박차관은** 호주 방문 당시 정부간 회의 성과 모멘텀을 적극 활용하여 **조속한 후속 협력을 추진할 것을 강조함**

❶ 산업부는 '22년 호주정부와의 수소·CCUS R&D 협력을 위한 **예산*** **및 절차를 마련하고 호주 내 수소버스 공동 시범사업을 유망과제로 旣 제안**한 바, **금년 상반기 내 호주측과 협의완료 추진**

* '22년 한-호 공동 프로젝트(수행기간 '22-'24) : 에너지국제공동연구 예산 중 30억원('22년 10억원), CCUS 국제공동연구 예산 중 약 28억원('22년 8억원) 할당

❷ 산업부가 준비중인 **청정수소 국제 교역 활성화를 위한 복수국간 이니셔티브 포럼**('22.6-7월, 서울)에 **호주정부의 참석 요청**

❸ 한-호 CCS 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CO_2 이동이 가능**하도록 한국 정부는 **금년 4월 런던의정서 임시이행 결의안 수락서**를 **IMO 기탁*할 예정**인 바, **호주 정부** 내 **신속한 수락서 기탁절차 진행을 요청**하고, **CarbonNet** 등 **추가 협력사업 발굴** 협의

* 실제 CO_2 스트림 수출 이행을 위해서는 수입국과 별도 협정 체결 필요

** 빅토리아주 인근 해양분지에 최대 200억톤 CO_2 저장 프로젝트('23년 이후 건설 착수 전망)

□ 박차관은 또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그에 따른 글로벌 에너지·자원시장 불안정 우려를 전하며,

○ "한국 정부는 실물 경제에 미치는 직·간접 영향을 상시 점검하면서, **각종 리스크에도 안정적이고 회복력있는 에너지·자원 공급망을 구축**할 것"이며,

○ **"한국에 긴급한 에너지·자원 수요가 발생**하거나, 중장기 **에너지·자원 공급망 구축을 위해 양국이 긴밀히 협력**할 것"을 당부함

□ **레이퍼 대사**는 **박차관의 호주 방문으로 한-호 양국의 정부·민간 간 실질적인 협력 이행이 크게 진전**되었음을 높이 평가하며,

○ 호주는 한국의 오랜 파트너로, **한국의 에너지·자원 공급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강조함

○ 금년 **호주 정부·민간 대표단이 한국 방문을 검토 중인 바, 다방면의 협력 성과 창출을 위해 산업부가 적극 협조**해줄 것을 요청함

□ 참고로, **한-호 정부간 협력 강화 노력의 결과**로, 3.16일 스캇 모리슨(Scott Morrison) **호주 연방총리가 발표한 '2022 핵심광물 전략'* 상 6대 중요 협력국**에 한국이 포함**되었으며,

* 2022 Critical Minerals Strategy, 요약내용 붙임 참조

** 6대 중요 협력국 : **한국**, 미국, 일본, 영국, 인도, EU

○ 호주정부는 한국 등 6개국과 **핵심광물 수요·공급 정보 공유 및 R&D·표준화 활동 협력을 활발히 추진**할 계획임

OPEN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부 에너지기술과 이수정 사무관(☎ 044-203-5157), 수소경제정책과 김만식 사무관(☎ 044-203-3953), 온실가스감축팀 고건우 사무관(☎ 044-203-5161), 광물자원팀 신승일 사무관(☎ 044-203-525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濠 **'2022 핵심광물 전략' 개요 (2022 Critical Minerals Strategy, '22.3.16일 발표)**

□ 수립 목표

○ 글로벌 핵심광물 수요 증가 시기 호주의 핵심광물 산업 발전 및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경제적 번영에 기여할 장기계획 수립

* '19년 1차 전략 발표 후 업데이트

□ 핵심광물 수요 및 호주의 강점

○ (수요) **탄소중립 관련** 태양광·풍력·전기차·ESS 핵심광물 수요 대폭 증가, 운송·항공우주·국방·의료·통신 수요 또한 지속 증가 예상

○ (강점) 세계 최대수준 코발트·리튬·망간·텅스텐·바나듐 **부존량**과 **친환경·윤리적 생산방식**

□ **핵심광물 목록**(26개) : ('19년 1차 전략) 안티몬·베릴륨·비스무트·크롬·코발트·갈륨·게르마늄·흑연·하프늄·헬륨·인듐·리튬·마그네슘·망간·니오븀·백금족·희토류·레늄·스칸듐·탄탈륨·티타늄·텅스텐·바나듐·지르코늄 + **('22년 추가) 고순도 알루미나·실리콘***

* 고순도 알루미나- 배터리·전자·자동차·항공우주 활용, '19년 $13억→'26년 $48억 시장 성장 예상
실리콘 – 반도체·전자·태양광 활용, '18년 $70억→'24년 $200억 시장성장 예상

□ 실행수단

○ **리스크 감소 프로젝트**(De-risk projects)

- 설비투자융자, 사업전 단계(타당성조사·시범사업) 지원, 해외·공공금융 투자유치 지원 등

  * '22년 핵심광물 가속화 이니셔티브 출범(타당성·엔지니어링·시범사업 등 지원, 2억AUD)

○ **활성화 환경 조성**(Creating an enabling environment)

- 필요기술 R&D, 표준화·인증, 공공인프라·특구 설정 등

  * '22년 국립핵심광물R&D센터 설립 착수(공공연구기관 집결하여 혁신기술 개발 주도, 5천만AUD)

○ **국제 파트너십 강화**(Strengthening international partnerships)

- 대상 : 가치관 공유·기술력 보유한 **한국·미국·일본·영국·인도·EU**
- 활동 : 핵심광물 수요·공급 정보 공유, R&D·표준화, 교역·투자 확대

※ 상세 내용은 https://www.industry.gov.au/data-and-publications/2022-critical-minerals-strategy 참조